

HYUNDAI E&C TODAY

Vol 398

2021 / 3 / 24 WED

발행인 윤영준
편집인 한성호
발행처 현대건설 홍보실
주소 서울시 중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신고번호 종로 다0049

아산 정주영 추모 20주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창조성,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개척하는 추진력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현대건설의 DNA다. 정주영 선대회장이 우리 곁을 떠난 지 20년, 강산이 두 번 바뀌어도 그의 위대한 정신은 우리 곁에 오랫동안 남아 있다.



정주영 선대회장의 위대한 도전 ‘서산 간척지’ 미래를 여는 신사업으로 새롭게 도약하다

2025년까지 625만6830㎡ 부지에 ‘바이오·연구 특구’ 조성 계획

정주영 선대회장의 창업자 정신이 녹아 있는 서산 간척지. 현대건설이 서산 간척사업에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중동 건설 붐이 절정에 이른 1977년 무렵이었다. 당시 선대회장이 기업의 이익과 거리가 먼 간척사업에 집중한 이유는 간단했다.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땅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선대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모두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포기한 간척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하면 된다’는 현대정신으로 거친 바다와의 사투 끝에 전체 국토의 1%에 해당하는 약 1만6000ha의 토지를 만들어낸 것. 그리고 오늘날, 선배들의 피땀 어린 도전 끝에 탄생한 서산 간척지는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또다시 혁신의 선봉장에 선 현대건설은 2025년까지 625만6830㎡에 달하는 부지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모빌리티 등 디지털 기반의 농업 바이오 단지과 미래차 개발을 위한 첨단 연구시설 등이 갖춰진 ‘바이오·연구 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미 서산특구 내에는 현대건설이 시공한 국내 최장의 ‘현대차 직선주행시험로’와 111만6157㎡ 규모의 ‘모비스 고속주행로’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 사업단 관계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굴의 도전을 계속해 온 선대회장님의 의지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이정표가 되고 있다”며 “향후 조성 예정인 ‘바이오·연구 특구’가 현대건설의 또 다른 도전과 성장의 역사로 남길 바란다”며 각오를 밝혔다. > 관련기사 2, 3면

Hyundai E&C started to consider embarking on the Seosan reclamation project in 1977 at the peak of the construction boom in the Middle East region, which was based on the belief that land is one of the most valuable legacies for descendants in this highly populated country. After struggles with heavy seas, Korea's primary builder successfully created 16,000 hectares of land which accounts for about one percent of the entire country. Hyundai E&C is currently taking another leap to transform the Seosan reclaimed land. The builder is planning to establish the so-called Bio-research Special Zone based on digital technology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I), big data, clouds and mobility in a bid to build a biotechnology complex as well as cutting-edge research facilities designed to develop future vehicles.

> Continued on page 2, 3

UNLIMITED HYUNDAI E&C

현대건설은 변화와 혁신으로 무장한 ‘현대정신’으로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새로운 자평을 열고 있습니다. <사보신문>은 구체적 실천과 강인한 추진력으로 ‘글로벌 건설 리더’를 향해 나아가는 현대건설의 도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FOCUS

스마트 건설기술로 중입자
암치료를 구축하다

TREND

망가진 지구를 구해줄
구원투수 ‘수소’

CUTURE

봄의 컬러테라피
‘따뜻한 안정감’

서산 바이오·연구 특구 조감도

1.2 직원들과 스름 없이 어울리며 소탈하게 웃고 있는 선대회장. 31980년대 초 집무실에서, 4 농부였던 아버지를 평생 존경했던 선대회장은 영농의 현대화에 대한 열정도 남달랐다. 5.7 '현장의 호랑이'로 불렸던 정주영 선대회장. 성실과 신용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어떤 순간에도 책임감 있게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6 열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쳤던 계동 본사 집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는 선대회장.

정주영 선대회장 20주기 한 지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한 발을 내딛는 용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정조성,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개척하는 추진력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현대건설의 DNA이자 경쟁력이다. 정주영 선대회장이 우리 곁을 떠난 지 20년, 강산이 두 번 바뀌어도 그의 위대한 정신은 우리 곁에 오랫동안 남아있다. 글=박연희

Hyundai Origin,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정신

빈농의 장남으로 태어나 20세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가 되기까지, 정주영 선대회장의 인생은 그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였다. '한국 산업 근대화의 주역' '한국 경제의 나폴레옹' '불가능했던 일을 실현한 사람'이란 수식어 앞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산 정주영이 있다.

게임 체인저 시대를 앞서간 혁신
정주영 선대회장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혁신의 에너지가 있었다. 특유의 추진력 덕분에 '불도저'라는 별칭을 얻었지만, 무엇보다 일을 진척시키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단지 많은 일이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였을 뿐이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도 불가능이란 단어가 사람들 입에 올랐다. 국내 안팎으로 "한국이 고속도로를 짓는 것은 시기상조다" "토목의 '토'자도 모르는 자가 일을 저질렀다"고 반대했다. 20세기 최대 역사(役事)인 사두기 주배일 산업항 공사를 위해 울산에서 주배일까지 엄청난 자재 물량을 바지선에 실어 나르는 해양 수송 작전을 펼칠 때도 "당치 않다"는 만류들 들어왔다. 그러나 선대회장은 "할 수 있다"는 굳센 신념과 의지로 모두의 걱정을 기우로 만들었다. 고장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상식의 틀에서 벗어나 얻은 결과였다. 우리 회사가 국내 최초로 해외에 진출한 것도 기존 프레임은 깨는 선대회장만의 도전정신이 바탕이었다. "모험이 없으면 큰 발전을 없다"고 말한 선대회장은 1965년 선전 16개국 29개 업체와 겨뤘던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했다. 국내에 고속도로 하나 없던 시절 이따금 패거리로, 당시 태국으로 가는 기술진과 노동자들의 첫 출국 모습을 KBS가 생중계할 정도로 큰 이슈였다. 선대회장은 20세기 대한민국의 변화를 주도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세상을 바꾸는 사람)였다. 중동 건설 붐이 절정에 이른 1977년 무렵, 선대회장은 국토 확장의 꿈을 키우며 서산 간척사업을 계획했다. 이익과는 거리가 먼 공사였지만, 땅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기에 많은 반대에도 뜻을 이어 나갔다. 바다를 매워 땅을 만드는 과정 중 최고 난도는 자 동차만 한 바위도 순간 쓸어버리는 초속 8m의 강한 유속을 마주할 때였다.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필코 답을 찾아냈던 선대회장은 '정주영 공법'을 탄생시켰다. 폐유조선을 이용한 전 무후후한 발상 덕에 방조제 공사에 필수인 물막이에 성공한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의 1%에 해당하는 약 1만6000ha의 토지를 더 갖게 됐다.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이 무한한 인간의 잠재력은 누구에게나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목표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고 이에 상응한 노력만 쏟아 부으면 누구라도 무슨 일도 할 수 있다" -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 중에서

계동 본사에서 열린 '아산 정주영 20주기 추모 사진전'

정익선 회장, 선대회장 추모 사진전 찾다

정익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3월 22일 정주영 선대회장이 열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쳤던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를 찾았다. '아산 정주영 20주기 추모 사진전'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정익선 회장이 계동 본사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사진전에는 우리 회사 운영진 사장, 현대엔지니어링 김창학 사장이 동행했다. 정익선 회장은 먼저 선대회장이 현대건설 창립 초기 실제 사용했던 책상을 관람했다. 계동 본사 15층의 집무실을 재현한 것으로 소박했던 선대회장의 면면이 드러나 있다. 20주기 추모 사진전에는 선대회장의 57가지 대표 정신 '도전' '창의' '혁신' '나눔' '소통'을 주제로 사진, 다큐멘터리 영상, 아록과 함께 포니 자동차, 포니 출시 45주년 기념 콘셉트 45EV 등이 전시됐다. 전시회장을 한참히 둘러본 정 회장은 끝으로 선대회장의 흉상 앞에 섰다. 2005년 우리 회사 임직원 이 선대회장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모금을 통해 건립한 흉상이다. 이번 추모 사진전에는 임직원뿐 아니라 일반 관객의 참여도 두드러졌다. 평생 도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선대회장의 업적이 담긴 사진 앞에서 관람객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연신 사진 촬영 버튼을 눌렀다. 한 인간이자 기업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겪은 도전과 시련, 성공의 대서사가 담긴 전시는 오는 4월 2일까지다. 한편 온라인 '아산 정주영 닷컴' (www.asan-chungjuyoung.com)에서도 선대회장의 업적을 세세하게 엿볼 수 있다. 9월 20일까지 열리는 추모 온라인 전시에서는 글과 사진, 영상으로 선대회장의 인생을 좇을 수 있다.

1 아산 정주영 20주기 추모 사진전을 위해 계동 본사를 찾은 정익선 회장. 2 정익선 회장이 우리 회사 운영진 사장, 현대엔지니어링 김창학 사장과 함께 재현된 선대회장의 집무실을 살펴보고 있다.

신용 약속을 금으로 여긴 건설인

선대회장은 성실과 신용을 좌우명이자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겼다.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1953년 4월, 선대회장은 대구와 거창을 잇는 고령교를 복구하며 전하(戰禍) 속 현대건설의 깃발을 꽂았다. 물자 수송과 지리산 공비를 토벌하기 위해 복구가 시급했던 고령교는 총 길이 195m로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장대교량이었다. 기초만 남은 채 거의 완화된 상태인데다 계절별로 가능할 수 없는 낙동강 수심,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치솟은 탓에 공사 중단의 위기도 많았다. 20년이나 갈아야 했을 정도로 큰 빚을 져야 하는 순간에도 공사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신용을 목숨처럼 여겼기 때문이다. 이 일은 당시 정부를 크게 감동시켰고, 그 후로 현대건설에는 "믿을 수 있는 회사"라는 평판이 따라붙었다.

선대회장은 '오늘과 같은 내일은 후대'라는 신념으로 남보다 앞서 태국 공사도 해외건설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허투루 얻어지는 성과만 있는 법.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건가 및 발질 정도로 현장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일은 끝내야 하고, 태국에 양질의 고속도로를 공기에 마쳐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며 "우리 '현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중대한 일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렇게 첫 해외건설 도전은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2억8800만원 여의 적자를 안겼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갖은 어려움을 딛고 끝내 공사를 완수해낸 현대건설을 신뢰하며 이후 다섯 번의 고속도로 공사를 더 맡겼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일반 시멘트보다 3배 비싼 조강 시멘트를 사용했다. 아차! 수관을 얹어놓고 시작한 일이었기에 이익을 남길 수 없다면 공가라도 맞춰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늘 '이익'이나, 신용이나 중에서 선택하려면 나는 언제나 신용을 선택했다"고 말했던 선대회장이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면 손해도 감수했던 선대회장은 스스로 "건설인"이라 소개했다. 각종 산업시설과 기반시설, 국가 간접시설을 건설하는 일은 선이 굵으면 사도 정밀해야 했고, 선대회장에게 꼭 맞는 옷과 같았다.

"나는 성취감을 좋아한다. 그래서 '현대건설' 외에도 많은 업종을 갖게 돼 그룹 회장, 명예회장으로 불리고 '경제인'으로 불린다. 하지만 혼자 내심으로는 나는 어디까지나 건설업을 하는 '건설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잃어본 적이 없다" -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 중에서

소탈함 가슴 따듯했던 현장의 호랑이

현장에서는 '호랑이'로 불렸지만 일터 밖에서는 일반 근로자와 막걸리를 마시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신입사원 수련대회에서 함께 씨름을 하거나 당시 유행곡을 외워 부르는 등 소탈함도 지녔다. 선대회장은 자신과 수많은 기능공, 임직원인 이룬 회사가 '현대'이며, 함께 만들었으니 근본적으로 동지라고 생각했

다. 자신을 그저 '꽤 부유한 노동자'라고 여겼던 선대회장은 관리자 권위주의를 갖는 것을 경계하며,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고운 말을 걸 것" ▶명령보다는 동기부여의 의욕을 올려 자율적으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할 것 ▶관리자의 인격적 결함이 작업장의 분위기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자기 계발에 노력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인력 관리 지침'을 만들기도 했다.

"우리는 다 같이 평등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위대한 사회는 평등의 의식 위에 세워지는 법이다. 일을 하기 위해 상하 질서가 있는 것이지만, 직장의 상하가 인격의 상하는 결코 아니다. 직책이 높고도 거들름을 피울 것도, 낮고도 위촉될 것도 없다" -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 중에서

선대회장은 국내외의 힘든 공사들을 최선을 다해 수행했던 현대건설 임직원과 근로자들이 늘 고마웠다. 땅과 정성으로 얻은 소중한 이익이기에 더욱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 1977년 7월 1일 '아산(사회복지재단)' (이하 아산재단) 이 세워진 배경이다. 선대회장은 당시 가치로는 500억원 상당의 현대건설 주식 50%를 출연해 아산재단을 설립했다. 이는 당시 정부의 1년 사회복지 예산인 195억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었다. 선대회장은 아산재단을 미국의 록펠러 재단, 포드 재단에 버금가는 재단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꿈꾸며 '의료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업' '연구개발' '장학사업' 등 4개 부분으로 사업영역을 나눴다. 돈이 없어 병을 고치지 못하고, 공부를 포기하고,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다.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모두가 애쓰던 1970년대 말은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다. 그저 "기업의 바탕이 되는 사회와 국가가 건강해야 기업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는 시대를 앞서는 생각으로 대규모 민간 사회복지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병고와 가난은 악순환을 일으킨다. 병치레를 하다 보면 가난할 수밖에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온전히 치료받을 수 없게 된다. 현대는 건강하고 유능한 수많은 사람의 힘으로 오늘날까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일에 뜻있게 쓰고 싶다는 것이 저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 아산재단 설립발표 기자회견 중에서

부리 변하지 않는 현대건설의 힘

정주영 선대회장은 타고난 긍정주의자였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서울에서 고된 막노동할 때 해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반대할 때도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했을 뿐 좌절감이나 실망감을 느끼지 않았다. "타고난 건강과 근면함만 있으면 오늘날보다 내일 더 발전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온 선대회장의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온전히 이어져오고 있다. 현대건설은 근면과 신용을 주춧돌 삼아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로서 세계의 랜드마크를 짓고 있다. 도전과 혁신이라는 반석 위에서는 글로벌 톱 건설사로서 '최초'와 '최고'의 기록을 세우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마음은 고객을 생각하는 회사의 품질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연결 중이다.

2021년 3월 21일은 선대회장이 하늘의 큰 별이 된 지 20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 땅에 태어나 한 사람의 기업인이자 성실한 노동자로 산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책과 다큐멘터리로만 들려지며 많은 이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정주영 선대회장의 길어온 길은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상황과 팬데믹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이자, 변하지 않는 현대건설의 뿌리로 남아 있다.

현대건설 사우들이 말하는 '아산 정주영'

"본사와 국내의 현장 등을 오갈 때마다 새로운 업무와 환경 변화에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힘든 일을 마주하는 순간마다 강력한 극복 의지와 끈기를 말씀하셨던 선대회장님을 떠올리고 합니다. 저는 우리 회사의 첫 페루 현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선대회장님이 기술 속에 숨어있는 뜨거운 열정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지수 책임매니저(페루 친목로 신공화 부주최 성 공사 현장)

"저는 특구 개발 업무를 하면서 사산에 대한 선대회장님의 애정과 더 나은 나라를 위한 의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사산은 디지털 기반의 농업 바이오 단지과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친환경 에너지 등 현 시대에 의미 있는 곳으로 또 한 번 변모 중입니다. 선대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습니다. 현대건설 파이팅!"
- 김민서 연구원(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사업단)

"선대회장님의 모든 순간은 2021년을 살고 있는 청년들과 건국도 지지 않을 만큼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반짝였다고 생각합니다. 계동 본사에서 진행한 전시회를 통해 다시금 선대회장님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는데, 카리스마가 담긴 모습부터 가족, 근로자들과 함께한 사진을 보면서 인간적인 모습 또한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빈 적은 없었지만 그림과 존경합니다!"
- 신현희 매니저(건축해외영업실)

Hyundai E&C makes first inroads into Peruvian market

Our company receives an order to construct Rafha substation in Saudi Arabia

Hyundai E&C has entered the Peruvian market for the first time since its establishment, gaining the upper hand in the infrastructure market in Peru.

Our company has received an order to level a construction site for Chinchero Cusco International Airport in Peru from the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 Hyundai E&C makes up 55 percent of the 143.8-million-dollar project. As a result of the assessment on the categories of technology and commerce, our company has been awarded the project, beating global leading competitors from Spain, China and Portugal. The project was designed to fill up the construction site and improve the soft ground in preparation for the construction of Chinchero Cusco Inter-

national Airport to be constructed in Chinchero City, about 15 kilometers northwest from Cusco, a gateway to Machu Picchu.

Our company will conduct the project by establishing a joint venture with HV Contratistas, a local builder in Peru. Prior to this valuable achievement made by Hyundai E&C, Team Korea, a consortium led by Korea Airports Corporation, won an order for the Project Management Office (PMO) in relation to Chinchero Cusco International Airport in 2019.

The Chinchero Cusco International Airport project promoted by the Peruvian government is aimed to build an international airport with an annual capacity of about six million passengers including one terminal with 13 gates and a four-kilometer runway.



The receipt of the order is expected to enable our company to gain momentum in receiving another order valued at 400 million dollars to construct a

passenger terminal and a runway. “This achievement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order acquisiti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our branch

in Peru in 2020,” an official of Hyundai E&C said. “We will keep winning orders in a variety of infrastructure markets in this South American country such as airports, harbors and hospitals by forging a closer relationship with the client.”

Meanwhile, our company received two deals one after another from Saudi Electricity Company (SEC), solidifying our leading position in Saudi Arabia, especially in the construction of transmission and substation facilities. This year alone, Hyundai E&C won an order to build the Rafha 380kV substation after the 380kV Hail Al Jouf OHTL project. Our company is expected to take a competitive edge in receiving construction orders in the kingdom based on the close relations with SEC.

현대건설, 페루 시장 첫 진출 ... ‘마추픽추 관문’ 친체로 신공항 부지 정지 공사 수주

사우디아라비아 ‘라파 380kW 변전소 공사’ 추가 수주 ... 글로벌 경쟁력 재확인

우리 회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남미 페루 진출에 성공하며 향후 인프라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우리 회사는 최근 1억4380만 달러 규모(당사 55%)의 페루 친체로(chinchero) 신공항 부지 정지 사업을 따냈다. 기술과 상업 부문을 망라한 종합평가 결과, 스페인·중국·포르투갈 등 유수의 글로벌 경쟁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 페루 교통통신부가

발주한 이 프로젝트는 잉카 유적지인 마추픽추를 가기 위한 관문인 쿠스코(Cusco)에서 북서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친체로시에 들어서는 신국제공항의 부지 성토와 연약 지반을 개량하는 공사다. 우리 회사는 현지 건설사인 HV Contratistas와 조인트벤처를 구성해 공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페루 정부가 추진 중인 신국제공항 프로젝트는 총 4km 길이의 활주로, 탑

승구 13기의 터미널 1개 등으로 연간 600만 명의 수용능력을 갖춘 국제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우리 회사는 이번 부지 정지 공사를 따내며 연계 입찰 예정인 4억 달러 규모의 ‘여객 터미널·활주로 건설 패키지’ 수주에도 힘을 받게 됐다. 특히 2019년 한국공항공사에 주도한 컨소시엄 ‘팀코리아’의 신공항 사업총괄관리(PMO) 사업 수주에 이어 값진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페루 지사 설립 후 이뤄낸 뜻깊은 첫 수주”라며 “발주처와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구축해 향후 페루 내 공항·항만·병원 등 다양한 인프라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주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는 사우디 전력청이 발주한 두 건의 공사를 연이어 따내며 사우디 송·변전 분야의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우리 회사는 올해 첫 수주였던

‘하일(Hail)-알 주프(Al Jouf) 380kW 송전선 공사’에 이어 ‘라파(Rafha) 380kW 변전소 공사’를 추가로 수주했다. 특히 이번 수주는 현지 및 인도 업체 등의 저가 투찰 기조를 극복하고 최근 사우디 정부가 강조하는 현지화 정책에 부합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우리 회사는 사우디 전력청과 탄탄한 유대감을 토대로 향후 신규 공사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계획이다.

H Together Lounge opens

A ceremony held to award excellent subcontractors



Our company sets out to communicate with our partners in a more active way by opening the H Together Lounge designed exclusively for Hyundai E&C’s subcontractors, the first of its kind among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The H Together Lounge is the shared office space equipped with a meeting room accommodating 10 people and meeting tables.

Our company will make use of this place as a rest zone for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of our subcontractors who visit the head office of Hyundai E&C, as well as a venue for the monthly conference with them.

협력사와의 상생 위한 ‘H Together Lounge’ 오픈 ... 2021년 H Leaders 우수협력사 시상식 개최

우리 회사가 건설사 최초로 협력사 전용 라운지 ‘H Together Lounge’를 오픈하고 협력사와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다.

계동 본사 사옥 지하 1층에 위치한 ‘H Together Lounge’는 미팅룸(10인실), 상담 테이블 등 공유 오피스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향후 이곳은 ‘협력사 협의회 월례회’를 비롯해 본사 사옥을 방문한 협력사 대표, 임직원의 상호 교류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3월 8일 열린 협력사 라운지 오픈 기념 간담회에는 우리 회사 운영진 사장, 서상훈 구매본부장을 비롯해 ‘2021년도 H Leaders 임원단’으로 선정된 대아인앤지 김형진 회장 등 10개 사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에서 운영진 사장은 “‘H Together Lounge’ 오픈은 협력사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수행·안전·품질우수 협



력사에 업계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할 예정이니 현대건설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협업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달 25일에는 협력사와 유기적인 상호협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H Leaders 우수협력사 시상식’을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운영진 사장과 각 사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176개 외주·구매협력사가 함께했다. 시상식을 통해 종합평가, 엘티삼보(보) 등 18개사가 우수협력사로 선정됐다.

Hyundai E&C leads smart civil construction

Our company has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Center for Smart Construction Technology of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KEC) to commercialize and advance smart construction technology on March 9.

Under the MOU, our company will actively cooperate in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smart construction technology with the Center, and the KEC will support our



business consultations with relevant agencies for the on-site application of smart construction technology.

현대건설, 한국도로공사와 손잡고 토목 스마트 건설 선도

우리 회사가 3월 9일 한국도로공사 스마트건설사업단과 ‘스마트 건설기술 실용화 및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기도 화성시 한국도로공사 R&D본부에서 열린 이날 서명식에는 우리 회사 김기범 토목사업본부장, 한국도로공사 조성민 스마트건설사업단장 등 관계자가 함께했다.

MOU를 통해 우리 회사는 실증 제공을 비롯한 스마트건설사업단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스마트건설사업단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과 더불어

여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지원기로 했다. 양사는 이번 체결 이전에도 우리 회사의 스마트 건설 혁신 현장 중 하나인 ‘세종-포천 고속도로 14공구’ 현장에 BIM 협업 플랫폼을 포함한 디지털 도면,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바 있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조기 도입을 위해 R&D 투자와 상생협력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MOU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과 실용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통합 검측시스템 ‘Q-Pocket’ 개발

우리 회사가 동종업계 최초로 모바일·웹을 통해 실시간 품질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통합 검측시스템 ‘Q-Pocket’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했다.

이 시스템은 현장의 검측계획 수립, 골조·마감공사 관리, 이후의 하자관리까지 활용 가능하다. 특히 하자관리 부분은 특화로 등록되어 있다. (특허번호 제 10-1969459호) ‘Q-Pocket’은 기존의 대면보고·결제 방식에서 벗어나 실시간으로 동영상·사진 등 검측

자료를 관계자들에게 즉시 공유해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우리 회사 뿐 아니라 협력사, 감리단, 발주처 등 공사 관계자가 편리하게 시스템에 접근해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어 하자 예방 및 고객만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Q-Pocket’을 통해 공동주택의 하자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한 현장 품질관리 업무를 100% 시스템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 Management Policy

Global Construction Leader for Happiness of All

행복 실현 글로벌 건설 리더

지속가능 성장

신행적·능동적 자세
구체적 실천과 강한 추진력
융합적 사고를 통한 기술 혁신

사회적 책임

고객 감동 경영
안전·품질 최우선
투명·공정한 업무 수행

행복한 일터

임직원의 행복과 자발적 의지 중시
관료적이고 경직된 문화 탈피
경청·공감이고 배려하는 문화

Sustainable Growth

Proactive attitude
Specific implementation and strong drive
Technology innovation through convergent thinking

Social Responsibility

Customer satisfaction
Safety and quality first
Transparent and fair business performance

Happy Workplace

Happy employees with voluntary willingness
Free from bureaucratic and rigid culture
Attentive and considerate culture

현대건설 12대 안전규범 8만

현대건설은 12대 안전규범의 생활화를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안전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불안전 행동 차단

설치/해체 작업구간 출입금지

관리자 설치/해체 작업구간 감시인 배치
설치/해체 작업구간 출입통제 (안전타이프, 간판 설치 등)
동바리/비계 설치 구간 DFS 적용 및 이행유무 확인 및 점검

근로자 설치/해체 작업구간 출입금지 (거꾸집, 동바리, 비계, T/C 등)

기초 질서 확립

음주금지

관리자/근로자 작업 전(전일포함) 음주 시, 작업 투입 금지 (음주 측정치 0.05이상 작업 배제)
현장 내 음주금지

지정장소 외 흡연금지

관리자 작업 구역별 흡연구역 지정

근로자 지정된 흡연구역 외 흡연금지
흡연구역 소파기 비치 및 담배갑조 정리

현장 내 과속 및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관리자/근로자 작업, 보행 및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업무상 휴대전화 사용시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서 사용)
운전시 안전벨트 착용
속도 20km/h 이하 준수

현장&사람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 내 연세 중입자암치료센터 현장. 현존하는 가장 우수한 암 치료 장비로 알려진 중입자 치료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장비 자체 규모가 크고 복잡한 만큼 그것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고도의 기술력과 시공 노하우를 결집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공사가 끝나고 나면 장비사인 도시바(Toshiba)의 중입자 치료기 설치가 뒤따른다. 추후 공사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작은 부분 하나에도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현장. 더욱더 정확하고 면밀한 공사를 위해 현장에는 BIM 및 스마트 건설기술이 도입됐다.

글=이진우



연세중입자암치료센터 현장 & 건축주택스마트건설팀

스마트 건설기술로 국내 최초 중입자암치료센터를 구축하다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의료시설 ‘연세중입자암치료센터 현장’

암 치료의 새 시대를 이룰 국내 최초의 중입자암치료센터가 세워지고 있다. 중입자선 치료는 탄소 이온을 생성해 빛의 70%에 가까운 속도로 올린 뒤 환자의 암 조직에 조사(照射)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이다. 기존 치료와 달리 주변 장기나 정상 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치료 기간도 대폭 줄여 중입자 치료기는 ‘꿈의 암 치료기’라 불린다. 연세중입자암치료센터 현장은 이 의료기술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공사 중인 지하 5층~지상 7층 규모의 복합건물에는 중입자 치료센터를 비롯해 연구시설과 음악대학 일부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 5층~지하 1층의 중입자 치료센터에는 탄소 이온을 생성·가속하는 가속기실, 회전 갠트리 2실, 고정치료실, 파워서플라이룸, 쿨링실/열교환실 등이 배치된다. 핵심 공간인 가속기실은 지하 4층에, 초소형 초전도자석의 회전 갠트리 치료실은 지하 5층~지하 3층 높이를 하나로 쓰는 대공간에 위치한다. 3개층 높이 규모의 회전 갠트리실은 2실이나 도입하는 것은 무려 세계 최초다.

의료시설은 기본적으로 기계·전기·설비 등의 구조가 복잡하다. 게다가 장비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도 각기 달라 공간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수다. 연세중입자암치료센터 같은 방사선 치료실은 구조체의 방사화와 인체 방사선 피폭 방지를 위한 차폐시설이 특히 중요하다. 이에 현장은 지하층 주요 실의 벽과 천장에 두께 2.5m 이상의 콘크리트, 50cm~1m의 철관을 적용해 차폐율을 높였다. 수화열(水和熱, 1mm의 분자나 이온이 수화될 때 방출되는 열량) 관리가 중요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 확보는 기술연구소와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시설 자체가 고난도인 데다 중입자 치료기는 전 세계에 10여 대만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생소한 터라 장비에 대해 파악하는 것부터가 큰 숙제였다. 도시바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인 상황. 배선이나 배관 등의 위치를 맞추고 예상되는 간섭을 방지하며, 청정소화가스 설비 등 우리나라 법규를 이해시키기 위한 협의가 전부 화상 미팅을 통해 이뤄졌다.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미팅이 불가능한 여건에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데는 실사에 준하는 BIM 도면의 힘이 컸다.

현장은 공사 시 특히 집중력을 발휘한 부분 중 하나로 중입자가 지나가는 라인과 바닥의 평활도(표면의 매끄러운 정도)를 꼽는다. 특히 갠트리실 장비 패드 2개 앵커(장비 패드를 연결하는 구조체)의 간격, 높이 등의 허용오차가 최대 -4~+4mm, 바닥 평활도의 허용오차 또한 0~+5mm 이내로 거의 없는 편이라 정밀 시공에 가장 중점을 뒀다.

대학 캠퍼스 내 한정된 부지에서 이뤄지는 심도 있는 공사. 현장에는 우리 회사 최초로 NRCRC 선조립 기둥/보 시스템, New Paradigm Reinforced Concrete) 공법을 적용했다. 공간에서 제작한 기둥과 보를 현장에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NRC 공법은 일반 재래식 거푸집이 아닌 철관 영구 거푸집을 활용하기에 품질 확보와 공기 단축, 원가 절감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게다가 기둥의 단면적이 줄어 협소한 부지에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었다.

올해 10월, 성공적인 준공을 향해 달리고 있는 연세중입자암치료센터 현장. 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의 공간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그날을 기대한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선도하는 ‘건축주택스마트건설팀’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중심의 혁신 기술은 이미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 그 흐름은 이제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돼 업계의 패러다임도 점차 바뀌고 있다. 우리 회사 또한 변화하는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2020년 건축주택스마트건설팀을 신설했다. 현장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건축주택스마트건설팀은 건축 및 주택사업본부 현장의 BIM(건축정보모델,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과 그 외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수주·입찰·현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내외 많은 발주처가 BIM의 의무적 사용을 요구하고 그 수준과 범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프로젝트 입찰 단계부터 현장 수행에 이르기까지 연관 업무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현장 특성에 따라 예외도 있으나 2020년부터 착공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맞춤형 BIM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전기 설비 공종이 복잡한 병원 현장에는 MEP(기계·전기·설비, Mechanical Electrical and Plumbing) 3D 코디네이션을, 모델하우스 비건립 세대나 실제 복업(실물 모형) 대체를 위해서는 디지털 목업을 구성해 현장에서 실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BIM 외 스마트 건설기술은 드론, IoT, VR/AR, 3D프린팅, 빅데이터, 로보틱스, 인공지능 등 그 종류와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이 때문에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수준을 파악해 현장에 적합한지, 어떤 업무에 접목시킬 것인지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기술을 찾는 게 관건이다. 이에 건축

주택스마트건설팀은 스마트 건설 혁신 현장에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해 기술적·경제적 이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증된 기술들은 확산 적용하고 있다. 다양한 스마트 기술의 적용은 현장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최근 현장에 적용한 ‘항타기 계속 무인화 기술’은 현장 기초공사 시 사람 대신 장비가 말뚝의 관입량을 자동 계속해주는 시스템이다. 사람이 직접 확인했던 기존과 다르게 장비 주변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다.

건설업계 스마트기술의 확산은 전 세계적 흐름이 됐다. 건축주택스마트건설팀은 이미 우리 회사만의 노하우를 쌓아 현장은 물론, PC 부재의 생산/운송/설치현장을 실시간 관리하는 스마트 자재관리 플랫폼의 경우 창원두동 물류센터 PC공사, 힐스테이트 레이크송도 3차 지하주차장 PC공사에 적용하고, 나아가 현대스틸산업에 기술을 전수해 철골부재 생산/시공관리에 전면 활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 회사의 스마트 역량을 높이 평가한 정부기관 및 공공기업에서 기술정책 수립 컨설팅, 직원 교육 등을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으로 발주처의 기술적 니즈를 충족시키고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는 등 클린 마케팅을 실현하고 있다.

건축주택스마트건설팀은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 업무 방식을 디지털화하는 근본적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자율적, 창의적 분위기에서 거리낌없이 아이디어와 의견을 표출하면서 성과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을 느낀다는 이들. 현장에서 BIM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날까지 우리 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도입해 기뻐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장&사람’ 매니저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우명주 책임(이하 우명주) 안녕하세요. 2020년 2월부터 연세중입자암치료센터 현장에 부임해 설비 기술 검토, 제안 품질 업무를 맡고 있는 우명주 책임입니다. 1991년부터 설비 업무를 시작했으니 어인 30년간 해왔네요.

김현정 책임(이하 김현정) 안녕하세요. 김현정 책임입니다. 구조 설계팀으로 입사한 후 2014년부터 BIM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지금은 건축주택스마트건설팀에서 BIM 기획/입찰지원/현장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어요.

오세영 매니저(이하 오세영) 반갑습니다. 2019년 2월 연세중입자암치료센터 현장에 부임한 오세영 매니저입니다. 현장에서 전기, 통신, 소방 공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우석 매니저(이하 양우석) 안녕하세요. 건축주택스마트건설팀에서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기획/지원/기술발굴 및 효과검증 등을 맡고 있는 양우석 매니저입니다. 이전에는 기술연구소에서 BIM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을 연구했습니다.

암 치료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연세중입자암치료센터 건설에 우리 회사 기술력이 집약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BIM,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부분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명주 연세중입자암치료센터는 ‘중입자가속기’라는 대형 의료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을 건설하는 현장으로, 플랜트 공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장비에 대한 이해와 필요조건 숙지가 중요해요. 의료시설은 일반 건물에 비해 배관이나 전기, 소방 등의 설비 설계가 복잡한데요, 정확한 시공을 위해 BIM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했고, 실제로 도움이 됐습니다.

김현정 입찰 안내서에는 다자인 확인용으로 BIM이 요청됐는데 착공 초기 전체 공정시뮬레이션, MEP 코디네이션까지 수행 범위가 확장됐어요. 발주처가 이미 BIM 활용 시뮬레이션을 접해본 적이 있어서 효율성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커뮤니케이션도 빨랐고요. 설계 당시 현장이나 입찰에서 작성한 BIM이 있을 경우 검토와 수정을 거쳐서 시공 BIM 모델로 활용합니다. 최종 도면과 일치하지 않거나 설계가 많이 변경된다면 다시 모델링하고요. 연세중입자암치료센터 현장의 경우 우리 회사 공사 후에 도시바의 공사가 예정돼 있어서 추후 공사와의 연계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오세영 제한된 공간에서 케이블트레이, 설비 덕트, 소화가스 배관 등 전기 및 설비 사항을 간섭 없이 시공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잡는 게 중요했습니. 종입자가속기 설치에 작업 인프라 구성이 현장의 목적이라 도시바가 제시공해야 하는 상황을 없애는 데 신경을 많이 썼어요. 도시바의 설계 사양 오류를 전달하고 또 수정을 거치는 등 과정이 상당히 많았지만,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논의했습니다.

우명주 설계상 우리가 설치할 배관과 도시바가 연결할 배관의 위치가 안 맞는 경우가 있었어요. 도면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BIM으로 시각화한 게 협의에 효과적이었습니다. BIM은 시공성 향상은 물론 품질 확보에도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틀째 중입자가속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차가운 물을 흘려보내는데, 장비를 통해 일반 물을 1mm의 순수로 변환한 후 의료장비용 클린 파이프로 공급하거든요. 현장에서 파이프 설치가 지연되면 오염의 우려가 있죠. 하지만 BIM으로 이 열 설계를 완성한 후 바로 시공했기에 오염을 막을 수 있었어요. BIM의 핵심인 ‘정확성’을 믿고 진행한 게 유효했습니다.

난도 높은 현장이지만 스마트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했는데, 수고한 서로에게 한마디 건넨다면요.

김현정 현장에서 오픈마인드로 BIM을 적극 활용하고 검토도 주저서 하나의 뜻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BIM을 잘 활용하시거나 한 번 경험한 분들이 다음 현장에서 먼저 업무 요청할 때 보람을 느끼는데요. 이번엔 스마트 건설기술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명주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기술 지원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입자가속기가 생소한 장비라 어려웠는데, 덕분에 장비에 대해 파악하는 일부터 발주처·장비사와의 커뮤니케이션까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오세영 워낙 복잡한 현장인 데다 변경 사항도 많아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결국 못 할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업 과정에서 도시바의 설계 오류를 찾아 검증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덕분에 발주처의 신뢰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양우석 해외사와의 협업, 난도 높은 공사로 고생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 국내 최초 중입자암치료센터가 연세대학교 캠퍼스 내에 건설 중이다. 2 현장은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으로 시공성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3 연세중입자암치료센터는 중입자가속기실, 회전 갠트리 2실, 고정치료실 등으로 구성된다. 4 건축주택스마트건설팀은 업무 디지털화를 통한 근본적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5 방사선 차폐를 위해 두꺼운 차폐 철관을 설치 중인 현장. 6 레이저 스캐닝을 통해 공사 현황을 3D 형태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망가진 지구를 구해줄 구원투수, '수소'

ESG 칼럼 어느 때보다 '환경'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요즘, 화석연료로 산업과 사회가 움직이는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아직은 천문학적인 비용, 수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인류의 발전을 놓치지 않으면서 망가진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구원투수로 수소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글=권낙현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센터장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75%, 수소!

세계는 심각한 환경문제와 에너지 자원의 고갈에 직면해 있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탄소경제 속에서 고속성장을 이뤘지만, 그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았다. 현재 전 세계 화석연료 에너지 의존도는 약 85%. 해를 거듭할수록 '탈(脫)탄소 사회'로 변화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인류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깨끗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전환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탈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탄소경제의 대안으로는 태양광·풍력·수력 등과 같은 자연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수소가 있다. 특히 수소는 인류가 찾아낸 가장 완벽한 청정 에너지원이자, 인류가 무한히 생산해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물(H₂O)의 구성 원소이기도 한 수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다. 심지어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하다. 수소를 산소와 반응시키면 전기를 얻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 발생하는 것은 오직 물뿐이다.

사실 수소는 이미 제품 생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인류의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한 암모니아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가 필요하다. 또한 합성연료 생산, 금속정제, 석유탈황, 열원(熱源) 등 다양한 산업공정에 수소가 이용되고 있다.

물론 지구상에는 다양한 재생에너지가 있다. 그러나 자연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는 날씨와 지역에 따라 생산량을 제어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잉여 전력(저장하거나 보존할 수 없는 전력) 혹은 전력 부족 현상을 야기한다. 그러나 수소는 생산한 전력이 남았을 때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남는 전기에너지에서 물을 분해해 수소로 만들어 저장하거나, 저장해둔 수소를 수소충전소에 공급해 수소 전기

차의 연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이용해 전기에너지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수소는 고압으로 압축하거나 액화할 수 있어 저장과 운송에 용이하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여타의 전기에너지는 대용량 저장과 장거리 이송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수소는 저장성이 우수하고 석유, 석탄, 천연가스처럼 운송이 용이해 '에너지 캐리어(Carrier)'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다.

공생과 경쟁 아우르며 '수소사회'로 전환

2017년 1월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는 세계 수소시장 규모를 2050년 2조5000억 달러, 연평균 6% 성장을 예상했으나, 글로벌 투자은행인 미국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9월 세계 수소시장 규모를 2050년에 12조 달러 규모로 훨씬 더 크게 전망하고 있다. 또한 수소경제 관련 글로벌 CEO 협의체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는 최근 수소경제에 대해 2030년까지 약 3000억 달러 이상 투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세계는 가까운 미래에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예측하고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요국은 세계 수소시장 선점을 위해 자국의 기술·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에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주요 글로벌 기업 역시 공생과 경쟁을 아우르는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의 추세와 걸음을 맞추고 있다. 2018년 맥킨지는 '대한민국 수소산업 비전의 거시경제 및 사회적 효과' 조사에서 2050년까지 수소 수요를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약 1700만t으로 전망했다. 또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약 17% 감소하고, 약 6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수소산업 확대 및 관련 장비 판매 등 약 70조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동반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 정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

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우리나라가 강점으로 보유한 수소차·연료전지 기술 등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전략과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의 수소 로드맵을 살펴보면 현재는 수소차가 1만여 대 보급돼 있으나 2022년에는 8만1000대, 2030년에는 85만 대, 2040년에는 620만 대가 보급될 것이다.

수소충전소는 현재 70기 정도이나 올해 약 180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022년까지 310기, 2040년까지는 1200기가 건설될 계획이다. 연료전지 발전은 현재 약 500MW가 있으나 2022년까지는 1.5GW로 증가할 것이며, 2040년이 되면 약 15GW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 세계 수소경제 리더, 한국 '에너지자립' 꿈꿔

사용하는 탄소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수소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친환경적임과 동시에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수소산업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소경제로 가기 위해 많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수소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서도 많은 운영 경험을 갖고 있다. 고압가스 인프라 구축 경험과 안전관리 능력은 선진국과 견줄 만한



지난해 4월 현대자동차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국내 최초 고속도로 수소 충전소를 공식 오픈했다.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선박회사, 수소 인프라 구축, 수소 생산기술 등 유수의 기업도 보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5년 9월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2015년 10월 수소차 공급 및 시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2019년 1월과 12월에는 중장기적인 '한국 수소경제 로드맵' '수소 안전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소경제 세계 1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미래자동차 산업개발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에는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의 국내 신차 판매 비중을 33%까지 높이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의 수소경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다. 전 세계 수소모빌리티 기술을 리드하고 있는 현대차는 2018년 12월 'FCEV(Fuel Cell Electric Vehicle) 비전 2030'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연료전지 시스템 연산 70만 대를 생산해 수소차 50만 대를 양산하고 20만 대는 수소모빌리티 생산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근에는 '2025 전략'의 일환으로 수소연료전지 독자 브랜드 'HTWO'를 론칭하며, 수소 모빌리티와 전동화 개발 투자 규모를 14조900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정부 역시 글로벌 수소시장 선점을 위해 올해 수소경제 관련 예산을 8244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현대차를 중심으로 기업들과 힘을 맞추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이 '기술 개발-국산화 및 제품화-글로벌 시장 진출 및 선점'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정책과 현대차 등 기업들의 민간투자 계획이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탄소중립은 물론 세계 수소경제를 리드하는 나라로 선봉에 서게 될 것이다.



세상 곳곳의 온화함 '분홍'

따스한 모성애와 자기에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분홍은 온순하고 온화한 기분을 만들어줘 우울증 치료제라고도 불리는 색이다. 벚꽃을 연상시키는 파스텔 톤의 베이비핑크, 조금 바랜 듯 아날로그 감성을 주는 올드روز, 무리 지어 함께 살아가는 산호의 색인 코럴, 강렬하고 통통 튀는 매력의 핫핑크 등 여러 계열을 통틀어 '분홍색'이라고 할 만큼 우리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하얀 사탕보다 분홍 사탕이 더 달콤해 보이고, 분홍빛을 띠는 향수는 사랑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준다. 비현실적인 상상과 꿈이 있는 곳을 그릴 때면 분홍색 구름이 펼쳐진 듯한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 분홍색이 주는 온화함은 곧 사랑의 힘으로,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과 수용의 힘은 우리가 살아가는 기초이며 가장 궁극적인 바탕이 된다. 1950년대 미국의 교도소와 취조실 내부 인테리어를 분홍색 벽으로 바꾸자 재소자들의 거친 행동이 잦아들고 사고 발생률도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분홍색은 그런 사랑의 힘을 불러일으키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여준다.



봄, 그리고 파스텔 컬러

봄의 컬러는 곧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어우러질 때 더욱 아름다움을 내뿜는 파스텔 컬러의 향연이다. 유럽의 로코코 시대 또한 파스텔 톤의 시대로 유명한데, 순색의 염료가 아니라 희귀했던 혼합 색인 밝은 파스텔 컬러는 궁중과 귀족의 우월함을 상징하는 색으로 특별하게 다뤄졌다. 파스텔 톤이라 부르는 페일 톤(Pale Tone)은 심리적으로 '선명한 원색이 가진 의미가 더욱 긍정으로 확장됨'을 뜻한다. 내가 가진 긍정 에너지를 더욱 부드럽게 풀어내고자 하는 심리이기도 하다. 너그러운 마음이 들 때면 내면에 파스텔 컬러의 물결이 일어나고 그 마음은 곧 타인을 향한 배려심, 사려 깊은 눈빛과 행동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파스텔 컬러에서 긍정이 아닌 허전한 마음이 느껴진다면 좀 더 강한 활력과 몰입하는 파워, 선명한 개성을 드러내고 싶은 심리가 내면에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공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컬러를 활용하면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에 맞는 에너지를 전할 수 있다. 여럿이 함께 생활하는 장소나 회사 내 직원들의 휴식 공간에는 친화력과 안정감을 높여주는 연두색이나 민트색을, 식사나 간식을 먹는 식음료 공간에는 소화를 촉진하는 부드러운 노란색을 활용해 보자.

봄의 컬러테라피 '따뜻한 안정감'

색감 산책 길었던 겨울이 끝나니 세상이 조금씩 다채롭게 변화하고 있다. 회색빛 날카로운 바람이 지나간 후 아이보리빛 봄 바람이 보드랍게 살랑대고, 얼어붙었던 땅에는 파릇한 새싹의 연둣빛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겨우내 경직됐던 몸을 풀어주는 따스한 봄기운을 우리의 옷과 음식, 모든 자연 속에서 시각적으로 만나게 된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바뀌는 나의 마음, 봄엔 어떤 색으로 채워질까? 글=임휘성 컬러테라피스트

컬러가 갖는 힘에 대하여

색은 태양빛 에너지에서 비롯되는 전자 파장의 한 종류다. 빛의 여러 에너지 중 유일하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의 파장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이 가시광선 안의 색은 우리가 삶에서 보고 사용하는 모든 색을 포함한다. 색이 가진 고유의 파장은 그 특성에 따라 사람의 정신, 신체, 감성에 영향을 미친다. 한 사람이 표현하고 드러내는 색 또한 그 사람만의 개성과 정보를 담아낸다. 이렇듯 색은 우리의 삶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상 곳곳에서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다. 계절을 표현하는 색채는 누구나 익숙하게 보고 경험해 왔기에 쉽게 떠올릴 수 있다. '봄'이라는 단어에서 사람들은 어떤 컬러를 떠올릴까? '노랑' '초록' '분홍' 세 컬러가 압도적이다.



밝고 힘찬 에너지 '노랑'

노란색은 유채색(색을 가진 색)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 땅과 생명에 생동감과 온기를 부여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색이다. 눈부신 햇살 같은 노란색은 '자아'를 의미해 자신감, 자존감과 관련된 고민이나 생각이 많아질 때 끝난다. 또 지식적 탐구나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으로 반짝일 때 당기는 경우도 많아 지식에 대한 의지와 변화, 도전의 컬러로 통하기도 한다. 노란색은 두뇌 활동을 활발히 하거나 소화를 촉진시키는 에너지가 있어 회의 실이나 다이닝룸에 활용하면 좋다(변비를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해와 명료함을 불러오는 노랑을 공간에 입히면 햇빛이 들지 않는 방이라도 밝고 상쾌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모르는 장소에서 누군가에게 길을 물을 때 노란 옷을 입은 사람에게 가장 많이 말을 건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낮선 환경에서 친근감과 호감을 주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노랑'이 있는지 찾아보자. 생각보다 많이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자연을 고이 품은 '초록'

봄에 새로이 솟아나는 풀잎의 연두색에서부터 늦여름 무성한 숲의 진초록에 이르기까지 초록은 자연 그대로의 색이다. 이 색은 조화와 균형의 에너지를 머금어 심신이 지친 사람들에게 휴식과 위안을 준다. 황갈색으로 메말랐던 흙에 봄기운이 돌면 곳곳에 연둣빛 새싹이 돋는데, 아스팔트 틈새를 비집고 초록을 틔우기도 한다. 이 새로운 생명은 자신의 자리에서 천천히 성장하기 시작한다. 이때가 세상을 이루는 모든 색 중 가장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색이 탄생하는 시기다. 봄의 초록색을 떠올릴 때 많이 연상하는 컬러는 어린 새싹의 연둣빛 초록이다. 생동감 도는 밝은 톤의 연두색은 불안한 마음의 해소를 돕는다. 어린 잎의 색이기에 연약할 것만 같은 연두색은 주변의 인간관계와 현실에 대해 친화력을 갖게 하고 자신이 속한 세상이 완벽해질 수 있도록 스스로 보완해가는 능력을 갖는다. 긴 고난의 겨울을 견뎌내고 움트는 초록의 에너지는 그 어떤 색보다 생명력 있는 힘을 지닌다. 초록의 치료 능력은 가히 놀랄 만하다. 고대 로마제국에서는 납작하게 다듬은 에메랄드로 안경을 만들어 눈의 피로도를 낮출 때 사용했다는 문헌이 남아 있다. 실제로 표준 녹색 중 살짝 어두운 회색빛의 녹색이 눈의 피로도를 낮추기 때문에 학교 칠판이나 외과 수술실에 응용되기도 한다. 색채론 3부작을 저술한 대문호 괴테는 "더 이상 바라지도 않고 바랄 수도 없다. 그러므로 항상 머무는 방에는 녹색 벽지를 바른다"는 글을 남긴 바 있다.



추천! 이럴 땐 이 컬러를 쓰세요

- 빨강** **힘이 부족하거나 무기력하고 지칠 때**
행동력과 활력의 에너지가 가장 강한 컬러. 현실 감각과 리더십을 대표하며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힘과 의지력을 북돋아준다.
- 보라** **우울하거나 슬플 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
자유로운 감정의 흐름을 가진 영적인 컬러로 통한다.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정신 활동에 도움을 주며 예술적인 영감을 자극한다. 우울하거나 외로울 때 위안을 주는 치유의 에너지가 있다.

- 파랑** **생각의 정리가 필요하거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때**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이해력과 말하는 힘을 주고 신뢰감을 형성하는 대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긴장한 신체를 이완시키고, 이성적 사고와 신중한 판단력에 도움을 준다.
- 주황** **긴장하거나 불안정하고 삶이 지루하다 느낄 때**
생동감을 더해줘 입맛이 없을 때, 자극이 부족할 때 좋다. 낙천적인 에너지가 필요할 때 명랑함과 즐거움을 주며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
- 흰색** **현재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막막함이 있을 때**
빛과 진실의 컬러로 어지러운 마음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순수한 상태로 되돌리는 힘이 있다.



“한국의 메릴 스트리프? 나는 단지 한국의 윤여정”

피플인사이드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윤여정. 단숨에 전 세계를 사로잡은 그녀를 만났다.
글=강혜란 <중앙일보> 기자 / 사진=연합뉴스

한국 배우 최초, 노미네이트된 것만으로도 영광

“제가 지금 나이 74세인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여러분 응원에 감사를 전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이렇게밖에 인사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노미네이트됐으니 이제 수상을 응원하시고 바라실 텐데 후보가 된 것만으로 상을 탄 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윤여정이 소감을 전했다. 지난 3월 15일(현지시간) 발표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 명단에서 재미교포 2세 정이삭(리 아이작 정·43) 감독의 영화 <미나리>가 작품상·남우주연상(스티븐 연)·여우조연상(윤여정)·감독상·각본상(이상 정이삭)·음악상(에밀 모세리) 등 총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재미동포 이민진 작가의 애플TV 미국 드라마 <파친코> 촬영차 캐나다를 방문하고 15일 밤 한국에 도착한 윤여정은 코로나19로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마리아 바칼로바 <보랏 속편>, 글렌 클로즈 <힐빌리의 노래>, 올리비아 콜맨 <더 파더>, 아만다 사이프리트 <뱅크> 등 세계적인 배우들과 아카데미 조연상 트로피를 놓고 겨루게 된 데 대해 “그간 응원이 감사하면서도 솔직히 부담스러웠다. 올림픽 선수들의 심적 괴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은 경쟁을 싫어한다면서 “사실 노미네이트된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후보에 오른 다섯 명 모두가 각자의 영화에서 최선을 다했다. 한 작품을 다른 배우들이 연기해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기에 이 노미네이트만으로도 상을 탄 거나 같다”고 거듭 말했다.

<미나리> 대본 안겨준 이 PD와 함께 축하

정이삭 감독의 자전적 영화에 참여하게 된 계기도 돌아봤다. 그녀는 “동포 2세들이 만드는 작은 영화에 힘들지만 보람 있게 참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쁜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면서 “영화 시나리오를 전해주고 감독을 소개해 책임감으로 오늘까지도 함께해주는 제 친구 이인아 PD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독일 동포 출신의 영화 제작자 이인아 프로듀서는 윤여정에게 <미나리> 시나리오를 건네준 인물. 그의 설명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함께 자가격리 중 후보 선정 소식을 같이 들었다고 한다. 윤여정의 이름이 마지막에 호명되자 이



PD가 울더라는 것. 반면에 윤여정은 “멍해서 눈물도 나지 않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한국 여배우가 오스카 후보에 오른다는 건 꿈도 꾀본 적 없고, 그게 나라니 믿을 수 없다”면서 “영광스러워 멍하다. 마치 딴 세계 이야기 같다”고도 했다. “모든 사람이 (축하하기 위해) 이곳에 오고 싶겠지만, 여기에 올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농담조로 말한 뒤 “친구인 이인아 PD가 술을 전혀 못 하는 게 문제라 혼자 마셔야겠다”고 덧붙였다.

나는 한국의 윤여정, 다른 사람 아닌 나 자신 되고파

외신에 따르면 윤여정은 그간 미국 평단이 ‘한국의 메릴 스트리프’라며 쏟아낸 찬사에 대해 “일종의 스트레스였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한국의 메릴 스트리프로 불리는 것이 칭찬이라는 것을 알지만, 웬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메릴 스트리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이고, 저는 단지 한국의 윤여정이다. 모든 사람은 다르고, 나는 나 자신이 되고 싶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힘과 에너지가 있다면 일생의 경험이 될 수 있는 오스카 시상식을 위해 LA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총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미나리>의 수상 여부는 다음달 25일 시상식에서 가려진다.

아카데미 시상식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른 <미나리>

1980년대 한인 가족의 미국 정착 분투기를 그린 <미나리>에서 그는 딸 모니카(한예리) 가족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한국에서 건너온 친정엄마 순자를 연기했다. 포브스지는 “<미나리>는 낯선 곳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국계 미국인 가족 이야기이지만, 이민자들이 어떻게 미국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평했다. 외신들은 지난해 <기생충>(감독 봉준호)에 이어 한국계 영화 <미나리>가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른 점도 주목했다. LA타임스는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이 역사적인 승리를 했지만, 오스카는 아시아 사람들과 아시아계 미국인의 재능을 인정하는 데 있어 최악의 기록을 갖고 있다”며 “남우주연상 후보로 지명된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 스티븐 연이 오스카 역사를 만들었다”고 의미를 부여했



다. 할리우드 시상식 예측 사이트 골드더비는 윤여정과 스티븐 연의 후보 지명을 “아시아계 배우에 대한 역사적인 후보 선정”이라고 평가했다.



영화 <미나리>Minari ※스포 없음

‘왜 굳이 미나리였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적어도 미나리의 생명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금세 고개를 끄덕일 만하다. “미나리는 어디서든 잘 자라”라는 영화 속 윤여정의 대사에서 알 수 있듯, 미나리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졌다. 구정물에서도, 줄기가 잘려 나가도 어떻게 해서든 온 힘을 다해 살아남는 모습이 자신의 가족과 닮아 ‘미나리’라고 제목을 붙였다는 정이삭 감독. 그의 자전적인 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미국 아칸소 농장으로 건너간 한인 가정의 일상을 담담하게 그려냈다. 아빠 역할의 스티븐 연, 엄마 한예리, 친정엄마이자 할머니 역할에는 윤여정, 할머니와 티키타카를 펼치는 아이들 역할에는 개구쟁이 막내 앨런 김, 의젓한 누나로 노엘 케이트 조 등이 출연했다. 이민 가족의 고군분투 정착기를 보여주는 <미나리>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포함해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각본상, 음악상 6개 부문 후보에 노미네이트되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힘입어 국내 박스오피스 1위 흥행까지 이어가고 있는 영화 <미나리>의 따뜻한 가족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그들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추천한다.

‘현타’ 온 회사 생활과 이별하기 ‘일하는 방식 변화 TFT’와 함께 바뀌요!

현대건설 편리미엄 우리 회사 2021년 경영방침을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눈에 띈다. 직원이 행복할 수 있는 ‘회사 만들기’란 특별한 사명을 안고 2월 22일 발대식으로 첫 출발을 알린 ‘일하는 방식 변화 TFT’(이하 TFT)의 A to Z. 글·정리=강은비



불필요·불합리한 것, 이제는 NO!

업무 기준·절차, 기업문화 등 생각해 보면 회사 생활에서 불필요·불합리한 것이 떠오르기 마련! 소통창구가 없어 마음속으로만 고민했다면, 이제 ‘일하는 방식 변화 TFT’에 제안하면 된다. 임직원의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자 신설된 TFT가 ‘업무·관행 개선 및 조직문화 제안’ 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다른 의견에 공감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판을 오픈했다.

참여 방법 ① 직접 의견 내기 : 그룹웨어 게시물 ▶ ‘일하는 방식 변화’ 게시판 ▶ 아이디어 제안하기
② 댓글, 찬성/반대하기 : 의견을 내지 않더라도 댓글을 달아 의견을 더하거나 찬성/반대 공감 버튼 누르기 가능!

※문의 일하는 방식 변화 TFT 이준범 매니저



상근+비상근, 행복일터 어벤저스!

TFT장을 필두로 각기 다른 업무 경험이 있는 4개실 9명의 직원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 TFT에 모였다. 회사 생활 중 불편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조직 전반의 변화와 행복한 일터를 위해 더욱더 고군분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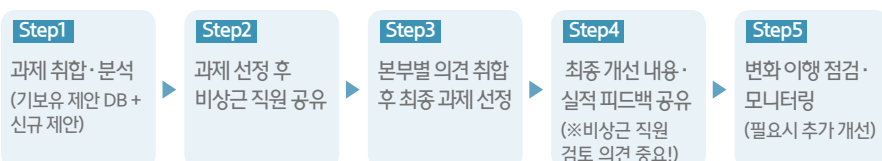
감사실 (3명)	사업/수행지원실 (2명)	인사실 (4명)	비상근 (22명)
과제의 효율성 및 이행 제고	현장·본부의 소통창구 역할 및 제도 검토	다양한 방식 의사소통을 통한 인사·조직 제도 바로미터	각 본부 대표 현업 의견 제시

상주 직원 외에 비상근 TFT원도 있다. 현장과 본사에서 근무하는 12개 본부 소속 22명 직원으로 구성된 이들은 평소에는 각자의 업무를 하지만, 상근 직원의 요청에 따라 다각도로 과제를 검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발로 뛰는 상근, 날개 달아주는 비상근!

과제 하나도 그냥 정해지는 법이 없다. TFT원이 과제를 정하고 이를 전사에 공지하기까지 부단한 발품이 필요하다. 더불어 비상근 직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 단계별 업무 분장으로 ‘업무 방식 변화’의 효율성을 증대했다.



※ ‘신규 제안 취합·분석’은 과제가 진행 중일지라도 계속 유지!



‘행복한 일터 만들기’ 함께해요!

현대건설 직원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추진력’이란 DNA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TFT원들도 주어진 과제를 개선하고자 말겠다는 ‘강인한 추진력과 실행력’, 그리고 임직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경청의 자세가 필수다. TFT 조직만으로는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회사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제는 진짜 바뀔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과 과제에 대한 쓴소리까지, 크고 작은 참여가 필요하다.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조직된 TFT의 ‘일하는 방식 변화’ 물결에 모든 임직원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



풍문으로 들었소~! 현재 진행 중인 과제가 있다고...(3월 18일 기준)

최근 3개년 각종 간담회와 워크숍, 설문 등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바탕으로 우선 추진 과제를 도출했다. 크게 ‘안전관리 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나뉘고, 그 안에서 각 7개 부문 20개 과제, 2개 부문 27개 과제로 세분화해 9개 부문 47개 과제를 진행 중이다.



TFT가 끝날 즈음, 우리 회사 ‘이것’만큼은 꼭 바뀌길 바란다!

민원기 책임	직원과 회사가 지속 성장하길 바랍니다. 향후 분명한 청사진이 그려지는 행복한 일터가 되길 기대합니다.
서정우 책임	우리 회사 문화는 물론 그 문화를 대하는 임직원의 인식도 바뀌길 바랍니다.
이규현 책임	회사는 직원을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인력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대접됐으면 합니다.
이준범 매니저	긍정적 변화를 실천하는 씨앗이 곳곳에 심어져서 직원 누구나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형성되길 희망합니다.
전태연 팀장	우리 회사의 ‘오늘’이 행복하게 바뀌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문화와 제도가 뒷받침되면 좋겠습니다.
최재원 팀장	기존 제도/규정은 최소한의 지침으로 존재할 뿐, 직원들이 행복하고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구축되길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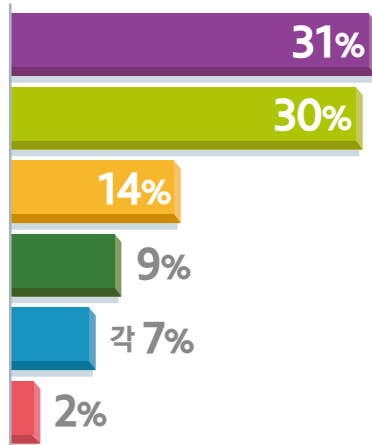


독자 참여 코너

Stay with Hyundai E&C Today!

Q 397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 쿠웨이트 알주르 LNG 터미널, 청정에너지의 전진기지로 떠오르다
- 2021 챌린지, 당신의 RE:시작을 응원합니다!
- 현대건설, 3D프린팅 기술로 미래 건설시장 선도하다
-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슈 ‘제로 웨이스트’
- 잡학퀴즈 / 스트로베리 디저트
- 수익사 설계현 인터뷰



현대건설 대표 소통 채널 <HYUNDAI E&C TODAY>!
사보신문 독자들은 지난 호의 어떤 기사를 가장 관심 있게 읽었을까요?

Q 다음 호에 읽고 싶은 기사가 있다면?

- #봄 추천 여행지
- #신입 인턴 사원 인터뷰
- #해외 현장 사우들 취미생활
- #캠핑 음식 레시피
- #코로나시대 현장 특징

✓ ‘정답x의견’ 보내면 사보신문이 쏩니다!



QR코드를 통해 퀴즈의 정답과 독자 의견을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소중한 의견을 보내 주신 분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지난호 정답 : 베블렌 효과 / 공포지수

- 참여 방법** ① QR코드 접속
② 설문에 응답하고 주관식 답 보내기
③ 선물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입력

참여 기간 ~4월 7일(수)까지(※당첨자 개별 연락)
당첨 경품 소정의 상품(5명)

‘나만의 현친’을 소개해 봄!

사보신문에서 봄맞이 임직원 사진 응모 이벤트를 진행했다. 현장에 근무하며 만난 ‘친한 동료’, 나만 아는 현장의 ‘美친 스낵’, 그리고 현장에 있는 ‘동물 친구’까지. 전 세계 현장을 누비며 추억이 담긴 사진을 기꺼이 꺼내 소개해 준 직원들의 베스트 9컷! 정리=강은비



여기가 바로 뷰티풀 코리아♡

#여수 신북항 외곽시설 축조현장 #시력회복 #답답한 가슴이 땀 #외국인줄 #힐링스낵 #송재영책임



고객 만족, HDEC 최고!

#HS학익 #현장점등식 #내가 인천의 뉴랜드마크 #힐스테이트 최고 #점등식마저 예술작품 #임동균매니저&주현수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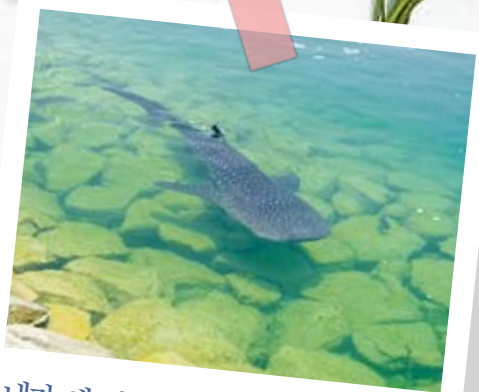
사막에서 함께하는 특별한 밤 ♪

#사우디 우스마니아 에탄 회수처리시설 공사 #사막바비큐파티 #에블바디 모두 출석CHECK! #정진혁책임



소중한 동료의 눈을 보호해 주셨다냥!

#터키 보스포루스제3교 #오늘도 놀러온 고양이 #인간캣타워 #냥이치 #친화력갑 #윤중훈책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UAE원전 #아쿠아리움인줄 #고래상어 등장 #맑고 깨끗한 바다 #오광규매니저



내 마음속 베스트 드론 사진

#필레본II발전소 #오늘은 내가 드론 조종사 #드론조종 #부딪 #강동현책임



출입 확인은 ‘미남’이가 하겠개!

#HS고덕스카이시티 #얼굴좀 보여주개 #현장 땀땀보안관 #강진영매니저



현장 구석구석 순찰한다냥!

#부산 에코델타시티 #현장 미와는 우리만 믿으라냥 #순찰고양이가족 #정유진매니저



현장이 낳은 쇠질꾼 연예인!

#연세중입자암치료센터 #JN.PARK종아요 #바디프로필 #주양우매니저